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3-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 748-5511~6

FAX 02) 794-8109

www.mnd.go.kr

2013. 4. 2 (화요일)

총 1쪽임.

담당자 : 미국정책과장 육군 대령 박철균

전화 : 02-748-6330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간 한·미 「연합작전 교육 과정」 MOU 체결

“한·미군 고급 장교를 위한 체계적인 연합작전 교육과정 개설, 연합작전능력 향상 전망”

-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육군 준장 신경수) 와 주한미군사 (작전참모부장 육군 소장 버나드 S. 샴포우) 은 한·미군 영관급 장교들에게 한반도 안보상황에 부합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미 연합작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일(화)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작전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였다.
- 「연합작전 교육 과정」은 한·미군 영관급 장교의 연합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로 개설되는 실무교육이다. 교육 과정에는 한·미동맹 관련 부서의 한·미 영관급 장교가 참가하며, 대령급 장교를 위한 「고위급 교육 과정」과 중·소령급 장교를 위한 「실무급 교육 과정」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교관은 한측에서는 합동참모대학의 교수진과 미측은 연합사에서 근무하는 미군장교로 구성되며, 한·미 주요 지휘관들도 초빙된다. 고위급 (3일) 및 실무급 (5일) 교육 과정은 모두 연 2회 (2월과 9월) 서울에 위치한 합동참모대학에서 개설되며, 제 1회 고위급 및 실무급 교육 과정은 올 9월에 최초로 열릴 예정이다.
- 「연합작전 교육 과정」은 한·미군의 핵심 중추인 영관급 장교들에게 연합작전과 관련된 교리·전술·전쟁수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한·미군간 교육 동참 및 토의를 통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과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한국에 처음 전입오는 미군 장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반도 전장환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